장성군,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年 1회 수당 지급

올 2970명에 2억6000만원 투입…9~13세 7만원·14~18세 10만원
전남서 진도군 이어 두번째 도입…문구·교복·서점 등 문화·여가 지원

장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청소년 수당은 장성에 사는 9~18세 청소년이 받을 수 있다. 9~13세는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연간 1회 받는다.

지난달 기준 올해 청소년 수당 지급 대상자는 9~13세 1496명, 14~18세 1474명 등 2970명이다.

장성군은 국가가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외에 청소년 보호법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당'을 마련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진도군에 이어 장성군이 두 번째로 청소년 수당을 도입했다.

올해 장성군이 청소년 수당 지급을 위해 세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이 포인트는 문화·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구점, 안경점, 교복점, 서점, 독서실, 공방, 예체능 분야 학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관련 학원에선 결제가 제한된다.

장성군은 이·미용점 18곳을 포함해 모두 47곳의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을 모집했다.

장성군은 바우처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며 청소년 요구에 따라 바우처 제도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장성군 예산을 따로 들여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 지역 초·중·고교 24곳과 학교 밖 청소년 2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장성군은 다음 달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어 청소년 수당에 대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포인트는 12월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포인트가 없어진다.

장성군은 오는 10월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카드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2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장성군은 오는 10월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남은 포인트와 사용 내역, 등록 가맹점 정보 등은 '바우처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바우처카드 뒷면 큐알(QR) 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누리집 주소를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061-390-7417)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청소년 수당 지원이 꿈을 실현해 가는 여정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군수 김한종·가운데)이 최근 9~18세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여가 부문에서 10만원을 쓸 수 있는 '청소년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장성군 제공〉

강진 가을 들녘 만끽하며 삼시세끼 건강밥상

수학여행으로 강진 '푸소'(FU-SO)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강진군 제공〉

다음달 20~21일 푸소 참여자 '홈커밍데이'… 참가자 60명 모집

강진 농촌 체험형 관광 '푸소'(FU-SO) 참여자들이 다시 강진을 찾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기념해 마련됐다. 홈커밍데이는 오는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열린다.

강진군은 '학생 푸소' '공무원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강진을 체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2만원으로, 푸소 참여 농가에서 머무르며 삼시 세끼를 즐길 수 있다.

8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 관람과 다도 체험도 이번 체험에 포함됐다.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푸소 여행 사진을 올리면 관련 상품(푸소 굿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5월 출발한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이다.

학생과 직장인, 공무원 등 다양한 도시민들이 강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푸소 홈커밍데이 참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푸소 누리집(fus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ji0s2@korea.kr)으로 내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체득하는 '푸소 홈커밍데이'로 다시 한번 푸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여행객들 한분 한분이 강진 푸소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필리핀 딸락주 계절근로자 도입

일자리 제공·시설원예 재배요령 등 농업 기술 전수

담양군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딸락주(州)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5일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 수잔 얍 술리트 딸락주지사, 지나 아르세날 가르시아 행정관 등 5명, 담양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딸락주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담양 농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담양군은 필리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시설원예 재배요령 등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군에서는 MOU와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등 연간 2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담양에서 근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 환경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 교류 외에도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읍 삼만리 일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내년에 준공되면 근로자들의 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농업 현장의 작업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준비 점검

군, 추진 보고회…11월 9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화순군이 오는 11월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를 앞두고 추진 보고회를 지난 21일 열었다.

올해 7번째 열리는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오는 11월16~17일 이틀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화순국제백신포럼에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보고회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이준행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강종철 부군수, 주관기관 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개요와 주제, 초청 연사, 행사 일정 등을 설명 듣고 행사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 포럼은 화순백신산업 특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 학술행사로 해마다 정기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석차옥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등 9명의 국내외 백신 분야 저명 학자가 참석한다.

화순군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월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 먹거리는 백신과 바이오산업"이라며 "앞으로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럼의 목적성을 확실히 정하고, 국내·외 참여자들이 많아지려면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10월 장흥은 '호두 축제의 계절'

12회 장평 명품 호도축제'가 다음 달 6~7일 장흥군 장평면 일원에서 열린다. 관람객이 호도 전시장을 관람하는 모습. 〈장흥군 제공〉

6~7일 할인 판매·노래 자랑 등

장흥의 명품 호도(호두)를 만날 수 있는 '12회 장평 명품 호도축제'가 다음 달 6~7일 장흥군 장평면 일원에서 열린다.

장평 명품 호도축제는 올해 12번째 열린다.

호도 전시장에서는 지역민이 소장하고 있는 '8각 호도'를 선보인다.

호도 판매장에서는 갖가지 명품 호도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풍물놀이와 전통혼례, 명품 호도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고 사진 찍기 좋은 촬영 공간도 마련한다.

김용문 장평 명품 호도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장평면 특산품인 호도를 통해 전 면민과 군민이 하나 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바람 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국향대전' 입장권 할인

함평군, 다음달 19일까지

함평군이 25일부터 오는 10월19일까지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국향대전은 오는 10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읍 시가지 등지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나를 위한 행복여행 인(in) 함평 국화'이다.

10% 할인된 입장권은 '티켓링크'에서 온라인 구매할 수 있다.

국향대전 입장료는 어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3000원 등이다. 20인 이상 단체로 입장하면 이용료각 1인당 1000원씩 할인된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지역 상가와 축제장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어른 2000원·청소년 1000원)을 나눠준다.

함평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고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061-320-2238)에서도 다음 달 13일까지 10% 할인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는 국화로 만드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현구문학상에 심규한 시인·송은일 소설가

제4회 현구문학상에 심규한 시인(52)과 송은일 소설가(59)가 선정됐다.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민)는 최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른 심규한 시인 시집 '못과 숲'과 송은일 작가의 '나는 홍범도'를 제4회 현구문학상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했다.

현구문학상은 1930년대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했던 강진 출신 김현구 시인(1904~1950)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강진군이 2020년 4월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 이에 근거해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구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있다.

수상 자격은 강진군에 연고가 있는 대한민국 문학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출간한 창작집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으로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 심사선정위원이 추천한 노창수 시인(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이재무 시인(천년의 시작 대표), 최한선 시인(전남도립대 명예교수)이 참여했다.

심규한 시인

송은일 소설가

심사위원회는 "요즘 생태 파괴의 현장이나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할 환경문학적 공감을 확대한 심규한의 시집과 홍범도의 일대기를 극적 장치와 담대한 기술력에 담아냄으로써 독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 장편의 면모를 잘 살려낸 송은일의 소설을 공동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개최됐으며, 두 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이 지급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